

불교복지사업 개선 이렇게...

최근 들어 복지법인들이 사업방향을 자체 시설 건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사업 위주의 불교복지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Table with 4 columns: 기관, 불교, 천주교, 개신교. Rows: 전체 산하시설, 자체 건립시설.

수탁 위주의 불교복지 한계 그간 불교복지는 지난 98년 이후 큰 폭의 외형적 성장세를 보였다. 6월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에 등록된 불교 사회복지시설은 총 468곳.

에 있다. 이는 복지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재·위탁 경쟁 없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고, 법인 설립 이념에 따른 복지사업 전개도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교복지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은 물론, 불교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까지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다. 또 한 가지

문, 불교복지법인들이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그간 소홀했던 여성·노숙자·상당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대구 H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스님은 "불교복지도 진작부터 자체 시설 건립에 사업 역량을 집중했어야 했다"며

자재 시설 건립 확보, 왜 필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법인 사업의 '안정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수탁위주 사업서 탈피 직영체제로 전환 시급



최근 자체 시설 건립으로 불교복지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위탁 아동복지시설에서 '형편인사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자재 시설, 최소한 40%대로 복지전문가들은 수탁시설 대비 자체 시설의 비율을 40%대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체시설비율 40%까지 높여야

불교사상 고취·프로그램 개발·인력양성 수월 지자체 관리·감독 안받고 지원금 부담 덜게 돼

노인·어린이 편중도 시정 과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6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조계종 복지법인 자체 시설 현황 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위원회(이하 전주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산하 시설 620곳 가운데 470곳(75.8%), 개신교는 2,000여 곳 중 80% 정도가 자체 건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카톨릭사회복지법인 박중민 총무 부장은 "전주고는 사회복지활동을 처음 시작한 40년대부터 자체 시설 건립중심의 사업을 벌여왔다"며

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시설법인을 제외한 불교계 복지법인 대부분은 산하 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시설 위탁 중심의 몸집 키우기에 치중한 점이 있었다"며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



사찰내 어린이 편의시설

신도들 고령화... 육아문제 '모르쇠' 젊은 여성불자 위한 세심한 배려를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창립 때부터 사찰 내 놀이방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요즘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는 고객확보를 위해 수영장과 기저귀 가는 곳, 어린이 놀이공간 등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고 있다.

이런 문제로 사찰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하였다. 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조계종에 등록된 신도를 보면 40대 이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사찰에서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 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찰 공간은 범죄가 있는 날을 제외

하고는 거의 비어있다. 조그만 실내의 놀이터와 약간의 편의 시설을 갖춘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서는 엄마가 불임을 보는 사이에 아이들을 잠깐 맡아주던 개념에서 나아가 아동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아동을 데리고 나온 엄마가 아동을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추세다.

이와 같은 유아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은 응용하여 사찰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엄마가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아동을 맡아보는 기능이다.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게 되면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 놀이방이 설치되고 법회 때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젊은 엄마들뿐만 아니라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Sabbaw' (쌀바위) from Miamasa, featuring a large rock imag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vitality.

Advertisement for Hambakjae Gashio Gappi (함박재 가시오가피), highlighting its natural state and 100% domestic production.

Advertisement for Dangno (당뇨) medicine, focusing on its effectiveness for diabetes and kidney health.